

새엄마의 차별이 너무 심해요 ❧

Q) 새엄마의 차별이 너무 심해요.

저는 세 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무서운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제가 열한 살 때 아버지 재혼을 하셨는데 새엄마는 본 자식과 저를 심하게 차별하십니다. 온갖 심부름을 저에게만 다 시키고, 제 학용품을 빼앗아 동생을 주며, 무조건 저만 혼내십니다. 저는 가출하고도 싶고, 심할 때는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서울에서 승훈(가명) 드림

A) 부모님께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말씀 드려보세요.

승훈 군이 세 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세 살이면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재롱을 부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할머니의 사랑도 여의치 못했다니 승훈 군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만약 승훈 군이 가까이 있다면 와락 끌어안고 머리로 쓰다듬고 등도 두드려주면서 마음에 쌓인 아픔과 분노가 다 사라질 때까지 토닥거리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승훈 군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 토해내서 정화가 이루어지도록 온갖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도 싶고요.

친엄마가 없는 서러움, 새엄마에게 편애당하면서 받는 억울함, 그래서 생기는 가출 충동과 자살하고 싶은 생각까지도 다 이해가 갑니다. 오죽하면 그럴겠는가 고개가 끄덕여지기에 승훈 군을 야단치거나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참고 견디며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승훈 군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부분(긍정적 사고, 긍정적 느낌, 긍정적 해결을 원하는 면)과 부정적인 부분(부정적 사고, 부정적 느낌, 부정적 해결을 원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을 '건강한 자아'라고 하고 부정적 부분을 '병든 자아'라고 할 때, 누구에게나 건강한 자아와 병든 자아가 섞여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승훈 군이 알았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상처나 병든 부분이라곤 한 구석도 없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내 건강한 부분들을 어떻게 점점 더 강하게 키워서 내 속의 병든 부분을 고치고 바로잡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각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승훈 군은 아직도 건강한 자아가 잘 움직이고 있는 사람, 즉 자신의 아픔이나 상처 등의 좋지 않은 상황을 좋은 쪽으로 바꾸어보려고 몸부림치며, 결국 그 승화시키려는 몸부림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 쪽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사실 이 문제는 승훈 군이 차별하는 장본인이 아니라 차별당하는 사람 쪽이기 때문에 다행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핍박당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같이 인간적인 힘이나 뒷배경이 없는 사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편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즉시 나타나셔서 어려움을 해결해주시거나 차별에서 건져주시거나 그 차별하는 사람을 벌하시거나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의 아픈 부르짖음, 호소를 들으시고 그를 돕는 결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인내하라고 가르치지요.(시편 37편을 승훈 군이 되 풀이해서 읽고 자신의 말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 바로 이런 힘들고 고달픈 과정을 겪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갈대상자에 담겨 버려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모세는 승훈 군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 알지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형들과 차별을 받아 공과 사자가 위협하는 들판에서 목동 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승훈 군은 생명을 위협받는 들판에서 공과 사자를 피해 두려움에 떨며 잠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을 생각해봅시다. 요셉의 친어머니는 요셉과 동생 베냐민을 낳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붓어머니들과 의붓형제들 틈에서 차별당하고 살았습니다(창 37:2,4,5). 그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여 없애 버리려고 구덩이에 던졌고 끝내 그는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창 37:18-28).

중요한 사실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이와 같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건지지는 않으셨지만 이들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끝내는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승훈 군에게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승훈 군이 겪는 지금의 모든 아픔은 승훈 군이 선택한 것도, 승훈 군의 잘못으로 빚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겪은 승훈 군을 어딘가에 사용하시려는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릇으로 쓰시려고 승훈 군을 준비시키시는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승훈 군은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가진 자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승훈 군, 하나님밖에는 승훈 군의 지금 형편을 위로해주실 분이 없습니다. 온갖 괴로움과 슬픔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고 위로해달라고,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먹고 꿀 보기 싫은 동생이지만 승훈 군이 그 아이에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크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차별하는 새어머니에게도 되도록 고분고분 순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훈 군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승훈 군의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 드려보는 것은 어떨는지요? 내게도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니 나를 따듯이 대해주셨으면 하는 승훈 군의 바람을 부모님께 솔직하게 표현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싫다고 거절하면, 계속해서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승훈 군은

더욱 하나님 아버지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환경에서 속히 이끌어 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승훈 군이 환경에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병든 자아의 소리에 귀 기울여 자신을 버리거나 파괴하는 쪽으로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오히려 무언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가출하거나 자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에게 기회를 주고, 웃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이깁시다.

글/박병은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